10월 8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10월 8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2
wr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미 증시, 주택시장 우려로 혼조..다우 0.06% ↓	뉴욕증시가 7일(현지시간) 지수별로 등락이 엇갈리는 혼조세로 마감했음.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세제지원 종료에 대한 우려감이 영향을 미쳤음. 다우 지수는 5.67포인트(0.06%) 소폭 하락한 9725.58을, 나스닥 지수는 6.76포인트(0.32%) 오른 2110.33을, S&P 500 지수는 2.86포인트(0.27%) 상승한 1057.58을 기록했음. 뉴욕증시는 장중 내내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미 달러화 반등으로 최근 상승을 이끌었던 상품주의 모멘텀이 둔화된데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에너지업종의 모멘텀이 약화됐기 때문임. 특히 주택건설주가 부진했음.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내달말 종료될 경우 주택시장이 다시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었기 때문임. 씨티그룹이 통신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강등한 영향으로 다우 지수 구성종목인 AT&T와 버라이존이 큰 폭 떨어진 점도 지수에는 부담이 됐음. 여기에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가 "글로벌 경제가 여전히 `심각한 리세션(severe recession)`에 놓여있다"고 밝힌 점도 부담을 줬음. 그러나 이날 발표된 코스트코, 패밀리 달러, 몬산토 등 주요 기업의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됐음.
코스트코·패밀리달러·몬산토, 분기실적 양호	알코아 뿐만 아니라 이날 발표된 기업실적은 대체로 양호했음. 회원제 할인점인 코스트코 홀세일의 회계연도 4분기(6~8월) 순이익이 주당 85센트를 기록해 전년동기(주당 90센트)보다 감소했지만 시장의 예상치(주당 77센트)를 크게 웃돌았다. 이 영향으로 주가는 강세를 보였음. 할인소매점인 패밀리 달러 스토어즈의 회계연도 4분기(6~8월) 순이익은 주당 43센트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비 13%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전망치(주당 41센트)도 웃돌았음. 패밀리 달러의 주가는 오름세를 나타냈음. 세계 최대 종자업체인 몬산토의 회계연도 4분기(6~8월) 순이익은 주당 2센트를 기록, 시장의 전망치(주당 1센트)를 웃돌았음.
미 달러화 나흘만에 반등..상품주 모멘텀 둔화	미 달러화가 유로화에 대해 나흘만에 반등세를 기록했음. 이에 따라 미 달러화 약세로 급등세를 연출했던 상품주의 모멘텀이 둔화됐음. 에너지업종도 탄력이 약화됐다. 미 달러화 반등과 더불어 지난주 휘발유 재고가 큰 폭 증가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쳤음.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11월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1.31달러(1.8%) 떨어진 69.57달러로 마감했음.

제목	주요 내용
국제유가 70달러 밑으로..휘발유 재고영향	국제유가가 7일(현지시간) 하락세를 보이며 배럴당 70달러선 밑으로 내려갔음.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크게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음.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11월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1.31달러(1.8%) 떨어진 69.57달러로 마감했음. 국제유가는 오전중 71.76달러까지 상승하기도 했지만,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이 악재로 작용해 약세로 돌아섰음. 이날 미 에너지정보청(EIA)는 지난주 원유재고가 100만 배럴 줄었지만 휘발유 재고와 정제유 재고가 각각 290만배럴과 70만배럴 증가했다고 밝혔음. 이중 휘발유 재고가 예상보다 많았음. 에너지 정보기업인 플랫츠는 이중 휘발유 재고가 130만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음.
노벨상 스티글리츠 "통화정책 한계 도달"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7일(현지시간) 글로벌 리세션이 여전히 심각하지만 각국의 통화정책이 한계 상황에 도달하고 있다고 밝혔음. 스티글리츠 교수는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블룸버그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각국의 경제가 여전히 `심각한 리세션(severe recession)`상황에 놓여있다"고 밝혔음. 그는 특히 유럽중앙은행(ECB)을 언급하면서 “통화정책이 한계 상황에 매우 근접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스티글리츠는 따라서 "경제가 당분간은 리세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통화정책의 한계를 감안해) 각국은 경제위기와 맞서기 위한 지렛대로서 재정정책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음. 스티글리츠 교수는 또 유럽연합(EU)이 지난주에 발표한 은행들의 자본적정성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도 피력했음.
생명보험 최초상장 동양생명 주가 `핫이슈`	국내 생명보험사중 최초로 오늘(8일) 주식시장에 발을 내딛는 동양생명의 첫 거래일 주가가 시장과 보험업계의 큰 관심을 끌고 있음. 동양생명은 이날 주가가 공모가인 주당 1만7000원선을 상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생보업계도 대한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이 내년 상장을 추진중이어서 동양생명의 주가가 상당 가격대를 유지할 것을 내심 바라고 있음. 상장 주관사인 대우증권에 따르면 지난달말 공모청약에 4312억원의 자금이 몰려 공모청약 경쟁률이 12.6대 1을 기록했음. 반면 동양생명 주가가 당분간 공모가를 다소 하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옴. 한승희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내재가치(EV)와 주가순자산비율(PBR), 잔여이익모델(RIM)을 가중평균해 산출한 적정주가는 주당 1만5000원선"이라며 "공모가에서 조금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타증권사 보험담당 애널리스트는 "동양생명의 이익창출능력과 자산규모는 상장된 2~3위권 손보사와 유사하다"며 "이를 토대로 비교해보면 동양생명 주가는 공모가를 하회해 1만5000원 전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음. 지난 7일 장외시장 종가기준으로 동양생명 주식은 전일비 2.3% 오른 주당 1만7800원을 기록, 공모가 대비 4.7% 높은 가격대로 거래를 마쳤음. 상장주관사와 동양생명에 따르면 동양생명 공모가 주당 1만7000원은 동양생명의 내재가치총액을 주식수로 나눈 값에 1.3배의 배수를 적용해 산출됐음. 이번 공모주식수는 2002만주로 구주매출 930만주, 신주모집 1080만주임.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Theme Analysis

Fixed Income Report

LEADING LIGHT

Weekly Outlook

유성엽 팀장
T 2009-7080
E syy@leading.co.kr

권효정
T 2009-7085
E hjkwon@leading.co.kr

이유진
T 2009-7078
E yjlee@leading.co.kr

LEADING
리 딩 투 자 증 권